

## 大學의 使命을 再吟味한다



京畿大 總長 金 翰 周

### I

大學은 歷史의 흐름에 따라 변모한다. 大學과 大學生이 국가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도 시대와 장소를 달리함에 따라 변한다. 그러면서도 대학은 변하지 않는 本質이나 使命이 있다.

무릇 대학은 知性·自由·眞理를 이념으로 하는 知性人의 共同體다. 그리고 그 명칭이 무엇이었던, 역사적 배경이나 설립 양식이 어떠하였든 대학은 칼 야스퍼스의 말처럼 “人類의 근본적인 知識欲이 집약되어 실현된 制度”인 것이다. 그러므로 目的으로서 존재하는 知識과 그것을 획득하려는 인류의 意志가 대학의 性格을 특징지운다. 즉 知識의 獲得·傳達·應用이라는 지식을 둘러싼 세 가지 기능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우선순위에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상호 불가분의 관련을 지니면서 研究·教育·社會奉仕를 대학의 三大使命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은 象牙塔이라는 틀로부터 社會 속에 노출되고 그 사회와 대학 자체의 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통적 대학과는 변모된 양상을 띠고 있다. 전통적으로 研究나 教育의 사명을 중히 여기면서 孤高함을 향유하여 오던 대학이 복잡다기화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巨大化되고 大衆化, 多樣化됨에 따라 오늘날 社會奉仕機能에 의해 研究·教育機能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大學人의 社會參與問題와 더불어 大學의 使命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우리나라 대학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예외일 수 없다.

요즈음처럼 대학이 世人의 關心對象이 되었던 적도 그리 흔치 않다. 社會問題 全般에 관한 문제 제기로부터 大學의 質的 向上과 같은 學內問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 大學街를 소용돌이치고 있다. 차라리 流行性熱病과도 같다는 느낌이다. 이러한 일련의 大學事態를 겪으면서 大學의 本質 내지는 機能을 再吟味하게 된다. 우리나라 대학이 對內外的 狀況變化에 대응하여 대학으로서의 使命을 다하고 있는가. 만일 사명을 다하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그 範圍를 逸脫하고 있다면 문제의 所在은 어디인가. 문제가 있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떠오르는 想念과 疑問은 끝이 없다. 그러나 해답도 결코 간단명료하지 못하다. 그만큼 어렵고 설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무언가 개선되어야 할, 그리하여 대학이 대

학으로서의 矜持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평소애 생각하던 견을 서술코자 한다.

## II

오늘날 대학의 요구되어지는 사명은 責任意識과 能力을 갖춘 창조적 指導者를 배출하는 것, 그리고 고도산업사회에 적응·기여할 수 있는 專門職業人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설정되는 구체적 목적은 人格의 涵養, 知識의 研磨, 원숙한 指導者의 力量의 高揚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명 또는 목적은 일정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대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본래의 사명을 다하려면 세 가지 근간이 되는 요소가 다듬어져야 한다. 學識과 德望을 겸비한 유능한 教授陣의 확보가 그 첫째요, 才質이 우수하고 品性이 원만한 學生의 확보가 둘째이며, 대학의 사명과 본질을 이해하고 教育理念에 투철한 大學運營體의 구축이 셋째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지나는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무언가 이들 세 가지 요소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채 사회의 격변과 더불어 표류되어 온 일련을 지니고 있다. 대학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웬지 調和보다는 不調和가 많지 않았었나 생각된다. 이것을 흔히들 量의 擴大에 수반된 質의 低下라는 말로 표현한다.

우리 民族은 남달리 學問을 숭상하고 教育을 중히 여기는 文化的 傳統을 지니 왔다. 이러한 教育熱이 日帝에 의해 35년간이나 박탈·억압되다가 解放을 맞이하면서 教育人口, 특히 高等教育人口의 폭발적 증가를 초래하였음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大學人口가 상대적으로 生産過剩狀態로 치달아 온 것이 사실이다. 人力需給面에서나 대학의 受容能力面에서나 지나치리 만큼 급속하게 대학인구가 증가하면서 大學教育의 質의 低下가 초래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50년대 창출된 방대한 高等教育人口가 '60년대 이후 高度經濟成長의 원동력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오늘날 고도의 情報產業社會에서 國家發展을 지속하려면 보다 많은 高級頭腦의 開發을 필요로 하고 있음도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教育政策上의 人力需給은 다소 그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60년대의 대학 인구 감축이 '70년대의 技術人力을 중심으로 人力難을 가져왔으며, '70년대 이후 급격한 대학정원 증대는 成長鈍化와 함께 就業機會가 줄어들면서 소위 高等遊民層을 형성하여 고등교육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음이 이를 반증해 준다.

특히 大學人口의 急増과 教育의 質低下의 상관관계하에서 지적되어야 할 보다 중요한 문제는 創造的 指導者의 배출이라는 대학의 사명에 관한 것이다. 국가발전을 위해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오늘날 필요 이상으로 과대한 大學人口 膨脹을 배경으로 배출되는 人材가 모두 指導者만 되려고 서두를 뿐이요, 모든 분야 특히 生産現場의 實務에 일꾼이 되려는 사람은 별로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머리나 입으로만 일하려 할 뿐 팔을 걷고 나서서 손으로 일하려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대학이 實行力이 결여된 인텔리형 知識層, 취업 내지 출세지향적인 무능력한 高學力者의 양성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손으로 일할 수 있는 각 분야의 고급인력에 대한 고등교육이 보다 시급하다. 근로를 달갑게 여길 수 있

는 知的 訓練이 수반된 고등교육, 남을 부리기만 할 생각을 가지는 교육이 아니라 남에게 부러지는 것도 기꺼워할 줄 아는 교육이 이루어질 때 大學教育의 진정한 의의를 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대학교육은 이를 위해 소모되어지는 방대한 社會的 資源의 효율을 위해서도 生産的이고 效率的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大學教育은 組織的이고 體系的인 改革이 요구되어진다.

管理者指向的인 知識人層의 폭이 넓어질수록 社會는 정신적으로 포류할 가능성이 있다. 작금에 노동문제나 농촌문제를 둘러싸고 일련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직접 생산현장에서 땀 흘리겠다는 사람이 적은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대학이 필연적으로 主體的 實行力을 갖고 責任感을 지닌 知性人보다는 機會主義的이고 現實主義的인 反知性的 知識人만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으로 귀결된다. 여기에서 大學教育이 生産教育·人間教育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까닭이 있는 것이다.

### Ⅲ

外的 動機에 의해 설립된 우리의 대학들은 建學理念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自由知性的 發展에 제약을 받아 왔다. 경쟁적인 大學設立과 學科增設·定員增加 등 양적 팽창으로 일관하던서 대학다운 대학으로 만드는 質的 向上에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量的 成長에 따른 副作用이 質的 發展에의 欲求와 함께 분출된 것이 대학가의 회오리의 원인이라고도 생각된다.

대학은 급격한 社會發展에 수반되는 產業 및 人力構造的 變化에 적응하고 또 주도해 나갈 資質과 能力, 즉 創意力과 開拓力을 갖춘 고급인력을 배출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大學人 즉 教授, 學生, 大學運營者 모두의 自覺과 改革에의 意志가 결집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知性이 배양될 수 있는 나름대로의 學風을 가꾸어야 한다. 학풍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학생들의 學問探究에 대한 의욕과 정열, 이들 探究熱을 탄탄케 할 수 있는 교수의 끊임없는 연구와 강의, 학생과 교수들이 충분히 研究하고 教授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자의 아낌없는 投資 등 모든 구성원의 열정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知性人의 殿堂으로서 아름다운 學風이 조성되고 향기를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學風의 바탕 위에서 구체적인 生産教育과 人間教育이 재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은 必知의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이 生産教育으로서 기능하려면 教授不足, 施設不足 등 教育與件의 개선을 비롯하여 教育課程의 개편, 教授方法의 多樣化와 같은 대학인의 자율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인의 自律的이고 主體的인 노력에 못지 않게 필요한 것은 企業을 포함한 社會全體와 政府의 支援과 努力이다. 한 예로서 첨단산업의 두뇌교육에는 방대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 특히 私學은 施設確保能力이 결여되어 있다. 설사 시설을 도입한다 해도 1~2년내에 舊式이 되어 버린다. 살아 있는 실험실습교육이 되려면 產學協同에 의한 현장교육의 확대가 절실하다. 이러한 교육의 內實化 努力과 함께 技術人力에 대한 社會的 認識과 處遇의 개선도 生産教育의 效率向上에 선결요건이 된다.

생산교육의 효율화와 함께 人間教育의 活性化가 시급하다. 오늘날 풍요와 사치와 낭비의 이면

에서 굶주림과 질병이 상존하고 實利追求로 표류하는 국제정치 조류 속에서 核武器를 포함한 戰爭의 공포, 범죄와 환경파괴 등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物質中心的 傾向 속에서 共存共榮, 共同善의 실현 내지는 福祉社會의 建設을 위하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價値觀의 확립에 바탕을 둔 人間性回復教育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대학의 文化的 環境의 개선을 선결요건으로 한다. 오늘의 대학은 多樣化되어 가는 大學生文化를 포용하는 환경조성에 미흡하다. 대학생 문화를 포함한 대학의 社會心理的 環境은 대학생들의 人間形成에 크게 작용한다. 학생들의 가치관등이나 人格形成의 統合을 저해하지 않도록 敎養教育의 강화와 함께 大學文化의 改革·暢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끝으로 大學教育의 質的 向上을 위해서는 大學의 自律이 필수적 요건이다. 대학의 발전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백화점 같다고들 한다. 그것은 획일적이고 沒個性의 대학의 특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학은 자유분방한 知性의 場이다. 대학은 자유로워야 한다. 大學의 自由는 획일적 통제가 아니라 自律을 전제로 한다. 대학이 명실상부한 自律의 조건을 갖추려면 大學運營에 관한 외부, 특히 政府의 介入과 統制가 축소되어야 한다. 敎員의 任用, 승진, 학생 선발,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칙의 제정 등은 교수와 총·학장의 교육적 의견에 따라 自律的으로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自律化의 定着이 비단 외부의 간섭 배제에만 있지는 않다. 이를 지켜 나가려는 大學人의 自覺과 反省이 병행될 때 차근차근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大學에 대한 國家, 社會, 國民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토록 大學人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의 과오를 솔직히 시인하고 建策을 밟지 않으려는 정신적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大學人의 손으로 大學의 權威를 회복하고 國家社會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大學의 使命을 다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노력의 결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